

TAEKWON-DO AND I VOLUME 3

Chapter 1 A Rewarding Time

Another New History

Time passed without interruption and soon it was December 1991. Traveling with Phap Lu a 5th Dan and Secretary of the Canadian Taekwon-Do Federation we left the Toronto Airport for the last seminar of the year. We had many layovers a changed aircraft many times and places before arriving at our final destination of Malaysia after 3 days travel. Malaysia is the second home of Taekwon-Do.

However, since the formation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now just WT) and the infiltration of fake Taekwondo-Do the foundation of legitimate Taekwondo-Do which has been built upon for years years had almost collapsed. I'm reminded of a saying that if you mix old grass with new grass it will all stink of old grass soon!

또 하나 새 역사를 이루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1991 년도 12 월이 되었다. 나는 이 해 마지막 세미나를 하기 위해 캐나다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인 유지강 (Phap Lu)5 단을 대동하고 토론토 공항을 떠났다. 시차가 많고 거 리도 멀어 여러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다보니 목적지인 말레이시아에는 사흘 후에야 도착했다. 말레이시아는 태권도 제 2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1974 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침투하는 바람에 [향기로울 냄새의 풀 과 나쁜 냄새나는 풀을 함께 두면 결국 전체가 나쁜 냄새를 풍기게 된다 : 혼유잡처종필위취]라는 글대로 내가 10 년이상 애 써 구축해 놓은 정태권도의 기반은 거의 무너지고 가짜태권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태였다.

책을 내면서 ... 5

1 장 보람있는 시절

또 하나 새 역사를 이루다 ... 13

명예박사 학위와 후계자 결정 ... 18

김일성 주석을 회고하며 ... 25

새로 드러난 일본의 만행 ... 29
담배를 끊다 ... 34
이제는 영원히 남게 되리라 ... 48
좋은 소식, 나쁜 소식 ... 56
뜻대로 된 3 월 ... 63

2 장 고난과 기쁨의 여정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 71
못 돌아올까 주저하다 ... 77
불편했지만 성과는 컸다 ... 88
들려오는 여명의 종소리 ... 100
기술은 금력을 이긴다 ... 106
제 3 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 113
이것이 천부의 건강이다 ... 119
위험하고도 힘든 여행 ... 131
다시 평양으로 ... 140
어려운 시작, 기쁜 결과 ... 148
환희의 비보가 겹치다 ... 159

3 장 올림픽과 ITF

감회 깊은 제 9 회 세계선수권대회 ... 171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다 ... 178
무도의 본질까지 강의하다 ... 178
믿음과 오해 ... 193
하루 세끼를 다른 나라에서 ... 199
지나치게 바쁜 일정 ... 205
실망한 김영삼 정권 ... 210
희망과 실망의 갈림길에서 ... 218
연맹규정 준수를 강조 ... 226
짧지만 불편한 국제항로 ... 231

가기 싫은 길을 떠나다 ... 238
'태권도 성지' 건설 추진 ... 247 4 장 국제무도경기위원회 발족
적절한 때의 4 월 모임 ... 259
미리 결심하고 떠나다 ... 265
외손자로 인한 단축여행 ... 271
팬암 선수권대회를 전후하여 ... 278
다시 들려오는 옛 목소리들 ... 289
알쏭달쏭한 방문객 ... 296
모두가 내 뜻대로 되나 ... 302
애써 키운 보람을 느끼다 ... 310 5 장 방한을 포기하다

록키산맥에서의 9 일간
기록적인 부자간의 여행 ... 325
계속 들려오는 희소식 ... 340
결정을 내리다 ... 348
태권도 운명을 좌우하는 결심 ... 356
결국 방한을 포기 ... 369
경기규정을 마무리짓다 ... 387
신기록을 낸 태권도 세미나 ... 393
베이징 태권도와 비행기 고장(하략)

